

# 3도3군 내고장 바로알기 문화탐방

### '무주군·충북 영동군·충남 금산군' 3도 3군 관광협의체 지역 간 교차 탐방 눈길

무주군을 비롯한 충북 영동군과 충남 금산군이 함께 활동하고 있는 3도 3군 관광협의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역사·문화 탐방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영동군 영신중학교 학생 등 80여 명이 무주를 찾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을 관람하고 태권도원(모노레일 체험, 전망대 및 태권도 공연 관람, 태권도 박물관 체험)을 둘러보는 등 체험학습의 기회를 가졌다.

영신중학교 김 모 학생은 "곤충과 수달 등 다양한 생물들을 보고 말로만 듣던 태권도원도 둘러볼 수 있어 좋았다"며 "나중에 얼마, 아베랑 다시 꼭 와보고 싶다"고 전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공동관광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3도 3군이 지역주



지난 14일 영동군 영신중학교 학생 등 80여 명이 무주를 찾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반디랜드 곤충박물관을 관람하고 태권도원(모노레일 체험, 전망대 및 태권도 공연 관람, 태권도 박물관 체험)을 둘러보는 등 체험학습의 기회를 가졌다.

민을 위한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탐방의 기회를 열었다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계층별 맞춤형 탐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운영해 주민들에게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안기고 지역경제는 더불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3도 3군 내 고장 바로 알기 사업이 이웃한 세 지역의 공동 관광상품 개발과 지역 상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주군과 영동군, 금산군 3개 지자체는 지난 2월 정기총회를 통해 각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해 관광수요를 창출하는 공동의 목표를 세웠으며 △3도 3군 연계 관광상품을 출시해 △해외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 사업 추진 △3도 3군 내 고장 바로 알기 문화탐방 사업을 추진해 가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 그란폰도·메디오폰도 자전거대회 성료

### 전국 1500여명 참가

2024 무주 그란폰도·메디오폰도 대회가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15일 무주군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자전거연맹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1천 5백여 명이 참가했다.

그란폰도 참가 선수들은 오전 8시 무주를 예체문화관 주차장을 출발해 부남면과 안성면, 적상면 하조사거리에서 라제통문을 거쳐 무풍면과 구천동 삼공삼거리, 적상면 초리마을을 돌



아 국민체육센터까지 124.5km를 달렸으며 메디오폰도 참가 선수들은 예체문화관 주차장에서 적상면 하조사거리, 적상면 양수발전소 홍보관과 초리마을, 산성교를 지나 국민체육센터까지 70.5km를 달렸다.

한편, '그란폰도'는 이탈리아어로 '긴 거리를 이동한다'는 뜻으로 유럽을 비롯한 각국에서 자전거 마라톤 이벤트로 개최되고 있으며 무주 그란폰도는 한국 최대의 로드레이스 명성이 높다.

무주군에서는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코스 점검과 노면 정리 등 대회 지원에 만전을 기했으며 대회 당일에는 공무원과 경찰, 자원봉사자 등 429명이 현장에 투입돼 안전관리와 진행·유도 요원으로 활동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 계북면, 장수가꿈 토마토랑 수박 축제 준비 박차

장수군 계북면이 '제2회 장수가꿈 토마토랑 수박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오는 8월 9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제2회 장수가꿈 토마토랑 수박축제'는 당초 '참샘골 토마토랑 수박축제'에서 장수군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군의 '장수가꿈' 공동브랜드의

이름을 따 축제 명을 변경했다. '장수가꿈' 공동브랜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이정관)의 노력이 엿보인다. 지난 4월 27일에는 함안 수박축제를 방문해 적극적인 벤치마킹에 나선 한

편, 자체적으로 축제를 위한 수박을 1천 주를 심어 안정적인 공급 방법을 마련했다.

해당 수박은 축제 당일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체험행사, 판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무더운 날씨 속에 위원회는 면 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해, 한마음으로 단합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은 지난 14일 안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천·용담면 경로당 지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 진안양수발전소 유치 설명회

### 군, 11개 읍·면 순회 주민 공감대 형성 위해 추진

진안군은 진안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군은 안천·용담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주민과 소통함으로써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첫 날인 지난 14일에는 안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천·용담면 경로당 지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수발전소 홍보영상 시청,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그동안의 활동과 향후 계획, 양수발전소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양수발전소는 주천면 대불리, 주양리 일원에 500MW 규모의 사업비 약 1조 5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

책사업이다. 특히 양수발전소 건설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각종 지원사업,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며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경제 활성화, 생활 인구 증가로 이어져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진안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양수발전소 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구동수 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그간 양수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양수발전소 유치를 힘 보태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제10회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 성료

무주군(무주군수 황인홍)이 주최하고 무주문화원(원장 맹갑상)이 주관한 덕유산 의병길 체험행사가 지난 15일 안성과 무풍, 설천면 일원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는 덕유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의병들의 주 활동로 체험을 통해 그들의 구국 항쟁 정신을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칠연의총 추모 의식과 덕유산 의병길 체험, 무풍면 이장촌·황대연·이종성 의병 추모상 참배, 무주군 설천면 출신 강무경 의병장·구한말 최초 여성 의병 양방매 부부 추모비 참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40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학생들은 "우리 지역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구국 현상이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그 시대에 내가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의병들이 선사해 준 소중한 오늘에 감사하면서 생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덕유산은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의병들의 주 활동지로 1907년 일본과의 접전이 공식 기록됐으며 무주에서는 1913년까지 구국 항일의병 활동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의병 항쟁으로 인해 덕유산 곳곳에 흩어져 있던 선열들의 유해는 1975년 안성면 '칠연의총'에 안치됐으며, 덕유산 의병길은 2013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호국여행지로 선정이 되기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흑삼 산업 발전 협의체 교육 실시

진안군은 지난 14일 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장에서 흑삼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진안 흑삼산업 발전 협의체는 진안 흑삼 업체, 인삼 관련업체, 관련공무원 등 16명이며 새로운 흑삼 신기술 선도단지로 도약하기 위해 발판을 만들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김진성 연구원을 초빙해 인·홍·흑삼의 표준화 현황과 금산의 흑삼 기능성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를 토대로 진안 흑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의를 진행했다.

진안군은 흑삼을 흑삼과 차별화 된 기능으로 호습기, 간 기능, 전립선 질환에 효능이 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흑삼 산업 발전 협의체와 더불어 흑삼 브랜드 기반 조성, 경제적 흑삼제조 표준공정 수립 연구를 통해 흑삼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힘 쓰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쏘가리 치어 6만여 마리 방류

진안군은 내수면 자연생태환경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지난 14일 용담호 및 읍·면 공공수면 3개소에 쏘가리 치어 약 6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쏘가리는 관내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으로써 치어 크기는 전장 3cm 이상이며,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합격한 검증된 종자이다.

토속 어종인 쏘가리는 고부가치 고급어종으로서 어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배스나 블루길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 퇴치에도 유용해 수산자원 보호에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질보전과 어족자원 및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올해 메기를 비롯하여 쏘가리, 붕어, 다슬기를 순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이며 건강한 하천생태계 보존과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전북특자치도와 협력, 지속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